

◇관상동맥우회로술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복재정맥채취법의 임상적 의의

윤정섭, 김치경, 박문섭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

배경 및 목적 : 관상동맥우회로술시 복재정맥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혈관이다. 복재정맥편을 획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하지의 종절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하지 절개부위의 창상합병증과 미용상의 문제를 발생한다. 이러한 합병증 및 미용상의 문제를 줄이는 방법 중 내시경을 이용한 복재정맥 채취법이 있다.

방법 :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시행받은 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복재정맥을 채취시 피부 절개군[30명]과 내시경군[42명]으로 나누었다. 각군간 연령, 성별, 동반질환, 수술시간, 체외순환시간, 정맥채취시간, 정맥편의 수, 피부절개 길이, 운동시 하지통증, 합병증, 술후재원기간 등을 비교하였다.

결과 : 각군간의 연령 및 성비, 동반질환의 차이는 없었다. 수술시간, 체외순환시간, 정맥채취시간, 술후 재원기간의 차이도 없었다. 채취한 정맥편의 수는 내시경군이 2.7 ± 0.7 [절개군 1.8 ± 0.8]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[$p < 0.01$]. 피부절개 길이 [$10.5 \pm 3.0\text{cm}$ vs $54.6 \pm 8.3\text{cm}$]와 운동시 하지의 통증정도 [0.6 ± 0.7 vs 2.1 ± 0.7]는 유의하게 내시경군에서 적었다 [$p < 0.01$]. 또한 정맥편을 채취한 하지에 발생한 합병증은 절개군 [35.7% vs 11.9%]에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 [$p < 0.05$].

결론 : 내시경을 이용한 복재정맥의 채취가 절개법보다 하지의 창상합병증을 감소시키며 미용상 잇점이 있고 보다 빠른 수술후 재활을 이룰 수 있다.

책임저자:윤정섭(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흉부외과)
 발표자:윤정섭(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흉부외과)